

“저출생 · 고령화 제일 심각”

군산시, 인구정책 수립 설문조사… ‘결혼 · 출산’,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요구

군산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저출생 · 고령화’였다. 11일 군산시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했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복잡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해 제각각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조사는 저출생에 대한 인식과 인구정책 사업에 체감도가 높은 임신부 및 학부모,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2일간 결혼 · 출산 · 양육, 정주여건 등 4개 분야 18개 문항을 온 · 오프라인으로 실시, 20세 이상 군산 거주 시민 1,692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연령은 30~40대가 66%로 가장 많았다. 결혼에 있어서 설문 참여 시민 58%는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결과 나타났다. 이 중 미혼 응답자 중 78%는 결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남자는 72%, 여자는 49%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아동 및 출산계획 관련해 응답자의 77%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희망 자녀 수도 2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도 78%나 됐다. 반면 자녀 양육의 장애 요인으로는 △직장과 육아 병행 부담(46%) △양육 및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38%) 등이 꼽혔다. 청년들의 경우 ‘취업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65%) △주택 등 거주 지원(16%) △직업 및 창업교육 지원(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정책 설문조사 응답자의 94%는 저출생 ·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군산시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로는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24%) △청년 및 중장년 정착 지원(22%)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아이사랑 365일 안심 키움센터 건립(23%) △부모 육아휴직 수당 추가 지원(2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군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로는 △문화 · 여가생활 시설 및 공간 확대(29%) △이동 복지정책 확대(14%) △청년 복지정책 확대(12%)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정책(11%) 등을 답변했다. 이현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 시스템 마련, 일 ·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익산시가 용동면 주민들과 함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주도 기초생활거점 조성 순항

익산시 용동면, 40억원 투입 용동새모센터 등 조성 속도

익산시가 용동면 주민들과 함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용동새모센터’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공공거점기능을 보완하고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SOC를 확충해 소재지 및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용동면 대조리 일원에 용동새모센터 신축, 복지화관 리모델링, 당하계 컴퓨터 등을 조성한다.

시는 문화 · 복지 · 체육 분야의 서비스 기능 시설을 확충해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가 사업으로 추진해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계획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금융권부터 공공기관까지… 익산시 취업박람회 개최

익산청년시청서 16일 개최… 전북은행 · LG화학 ·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업 · 기관 참여

익산시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금융권부터 지역 우수기업,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익산청년시청에서 채용상담 및 취업준비 방법을 제공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막연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원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은행, LG화학, 한국전력공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하림산업까지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 7개사 인사담당자가 참여한다. 채용일정과 인사지원 자격 등 기업 · 기관의 최신 채용정보부터 1:1 멘토링 시간을 통한 생생한 취업 노하우 전수와 취업상담까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채용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15일까지 익산 청년일자리센터(063-918-6088, 6089) 또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신청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박람회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통해 현장 채용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개 지역농협과 ‘친환경 벼 병해충 공동방제’ 협약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24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연구단지(육산, 서수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11일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과 육산농협, 동군산농협 조합장 공동방제단 대표 등 사업 관계자가 참여한 업무협약식에서 친환경 벼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및 유기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업체 입찰 및 선정 △약제 구입 · 공급 절차 △공동방제단 구성 및 운영 △공동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기 공동방제 실시 홍보 및 기술지도 △사업 시행 후 결과 평가 및 향후 보완책 마련 등 각 기관의 협력 가능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올해 약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친

환경 벼 재배단지인 육산 · 서수면 관내 벼 재배면적 약 1,764ha를 대상으로 친환경 약제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방제시기는 벼 출수가 일주일 전 적정시기를 기술자문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병해충 방제 공동방제단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병해충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군산시,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추가 접수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2024년 전북형 청년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 한다. 2024년 전북형 청년활동비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추가모집 인원은 71명이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동비지원사이트(<http://jyathzewel.com>) 또는 전북형 청년활동비지원센터(www.jb2030.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증명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이지웰(복지몰)에서 포인트를 바로 결제하거나 또는 카드 사용 후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는 취업 목표 관련분야 학원 및 인터넷 강의비, 교재, 자격증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현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활동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취업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목표를 전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은행의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고 다이로움 앱인 ‘착한페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카드는 착한페이 앱에서 신청하거나 지역 전북은행(8개소)과 신한 영업점(17개소)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상품권의 할인구제 한도는 보유한 카드 개수와 상관없이 1인당 월 7만 원으로 적용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전자입찰 교육 참여자 모집

군산시의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부문 판로확대 지원 위해 전자입찰 실무교육 참여자를 1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은 2020년 5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당시 184개 기업에서 현재 254개 기업으로 늘어나 38%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들도 예비 13개, 인증 사회적기업 24개, 협동조합 208개, 마을기업 6개, 자활기업 8개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 고용유지와 판로확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준비한 이번 실무교육은 입찰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공공구매 종합정보, 입찰정보 서비스 활용 방법 등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투찰 금액 산정 △적격심사 △계약 이행과 같이 전자입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교육과 관련 질의응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익산 다이로움, 발행 카드사 4개소로 확대

익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발행 카드사를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시는 기존 하나카드와 농협카드뿐만 아니라 JB카드와 신한에서도 다이로움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다이로움 카드 출시에 맞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이로움 JB카드 가입자 중 누적 5만 원 이상 사용자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1만 원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은행의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고 다이로움 앱인 ‘착한페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카드는 착한페이 앱에서 신청하거나 지역 전북은행(8개소)과 신한 영업점(17개소)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상품권의 할인구제 한도는 보유한 카드 개수와 상관없이 1인당 월 7만 원으로 적용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